



## SK루브리컨츠 출범, 유정준 사장 대표이사 선임



SK루브리컨츠(SK Lubricants)가 SK에너지의 100% 자회사로 지난 10월1일 창립했다.

SK루브리컨츠는 SK에너지의 윤활유사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공식 출범한 신설법인으로, 앞으로 윤활유·기유 전문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세계시장에 나선다.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에는 SK에너지 유정준 R&C(해외사업 및 화학사업) 사장이 선임되었으며, 유 사장은 양사의 직책을 겸임한다. SK루브리컨츠의 등기이사진은 유 사장을 포함하여 정태

한, 한치우, 황의균, 안희준 등 총 5인으로 구성됐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 10월1일 오전 창립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선임하고, 직후 열린 창립이사회에서 유정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SK루브리컨츠는 이날 오전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최태원 회장, 유정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윤활유사업은 SK에너지의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Global한 사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해왔다"며, "이제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 SK에너지의 울타리를 넘어 더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해 나갈 때가 되었고, SK루브리컨츠의 출범으로 그 도약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준 사장은 "독립회사로서의 독자적인 경영판단과 유연한 성장전략을 추진해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제품을 자랑하는 Global 리더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SK루브리컨츠의 향후 비전에 대해 밝혔다.

## SK에너지, 윤활유사업 분할 임시주주총회 승인

SK에너지는 지난 9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윤활유사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주주들의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

SK에너지는 지난 7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윤활유사업의 분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윤활유 신설회사인 SK루브리컨츠(SK Lubricants, 가칭)는 10월1일附로 Global 윤활유·기유 전문기업으로 설립된다. SK에너지의 윤활유사업은 지난해 1조8,798억 원의 매출과 2,5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으며, 높은 성장력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경쟁심화라는 경영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

보하기 위한 사업구조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윤활유사업 분할을 추진해 왔으며, 주주들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베트남 최초의 정유공장, SK에너지 기술로 운전

SK에너지가 BSR(Binh Son Refining & Petrochemical Co. Ltd.)사와 O&M(Operation & Maintenance, 공장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지난 9월15일 체결했다.

베트남 팜 응아이 시에 위치한 BSR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식에는 SK에너지 김명근 R&M사장, 기술사업부장 정태민 상무 등 SK에너지 관계자 10여명과 BSR사 쩐 반 투엔 회장, 응우옌 호아이 지양 사장 등 20여명의 베트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SK에너지는 이번 계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2014년 9월까지 향후 5년간 공장의 운전 및 설비의 유지·보수 등 공장운영 전



반을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유공장의 성공적 상업운전 ▲BSR인력으로의 점진적 대체를 위한 생산기술·유지보수 기술 등 공장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이번 계약의 체결로 향후 약 7,800만 달러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총괄한 SK에너지 김명곤 R&M 사장은 “지난 47년 간 축적해온 SK에너지의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SK 에너지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리더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계약의 의의를 밝혔다.

### 친환경 농약, 스프레이 오일 개발

국민들의 음식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무공해 농약이 개발되어 해외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SK에너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한 SK EnSpray(엔스프레이)는 미국 FDA 규격에 부합하는 식품급 오일인 YUBASE를 활용한 무공해 친환경 농업용 종합 살충·살균제이다.

무독성 고급 기유로 분류되고 있는 SK에너지의 YUBASE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반명으로는 ‘스프레이 오일’로 불리는 SK EnSpray는 일반 화학농약처럼 물에 희석하여 농작물에 분무함으로써 얇은 오일 피막을 형성하여 질식작용에 의한 살충과 살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의 화학농약과 비교해 천적에 대한 살충력이 극히 미비해 병충해만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작용원리가 질식작용이므로 내성발달의 위험이 없다는 점과 화학농약 사용을 줄여 잔류에 의한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유기농 자재, 특히 생물농약의 낮은 효능 대비 높은 효용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부가 화학제품(NMP) 사업 진출

SK에너지가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제품인 NMP(N-Methyl-2-Pyrrolidone)의 국산화 사업에 진출한다고 지난 8월2일 밝혔다. NMP는 LCD 및 반도체 제조과정의 세정제로 사용되거나, 리튬이온배터리(LiB)의 전극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그 동안 국내에서는 원재료조달 및 기술 확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4월 NMP의 주원료가 되는 부탄디올(1,4-Butanediol)을 생산하는 공정을 완공 및 상업화함으로써 NMP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으며, 이후 NMP 제조에 필요한 자체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NMP 제조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소수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보유업체들이 라이선싱(Licensing)을 꺼리는 고급기술로, SK에너지는 최근 이 기술의 자체개발에 성공해 사업 진출에 나서게 되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NMP사업 진출에 따라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NMP를 100% 국산화할 수 있게 된다”며,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탄디올의 상업화로 그 동안 NMP 생산의 제약사항이었던 원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등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SK에너지는 이를 통해 원료인 부탄디올부터 정밀화학 완제품인 NMP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GS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거행



이날 행사에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및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그 동안 모범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보여 준 GS칼텍스를 비롯한 GS계열사와 협력회사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였다.

GS칼텍스는 지난 8월 27일 GSE타워 아모리스홀에서 GS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GS계열사 사장과 임직원, 협력회사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늘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금까지 GS와 협력회사가 구축해온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LNG 장기 구매계약 체결



지난 8월 21일 허동수 회장은 쉘브론(Chevron)과 GS칼텍스의 첫 번째 LNG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의 체결로 GS칼텍스는 2015년부터 호주의 고르곤 프로젝트(Gorgon Project)와 쉘브론의 LNG Portfolio로부터 각각 25만 톤씩 총 50만 톤의 LNG를 20년간 공급받게 된다. 이로써 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LNG사업이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허동수 회장과 Chevron Global Gas의 존 개스(Mr. John

Gass) 사장 및 Chevron Asia Pacific Exploration & Production Company의 짐 블랙웰(Mr. Jim Blackwell) 사장이 이번 두 계약에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는 쉘브론의 데이비드 오라일리(David O'Reilly) 회장도 함께 참석하여 GS칼텍스와 쉘브론의 LNG사업 발전 및 양사의 돈독한 협력관계 유지를 기원하였다.

## 2009 GS Executive Conference

허동수 회장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진행된 2009 GS Executive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날 Conference에서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김응환 교수와 서강대학교 송의영 교수가 진행하는 'Case Study'와 '국제금융시장 메커니즘 이해' 등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허동수 회장은 맺은 말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기에 파과적 혁신이 더욱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도 Zero Base에서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산업계 간담회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녹색성장위원회-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감축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KBCSD회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경제상황·타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 쇼와셸 접견

허동수 회장은 지난 9월 1일 본사 접견실에서 일본의 석유화학 업체인 쇼와셸 세키유(Showa Shell Sekiyu k.k.) 시게야 가토(Mr, Shigeya Kato) 회장과 준 아라이(Mr, Jun Arai) 사장을 접견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양국 간 경제적 상황과 석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친환경과 대체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태양전지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쇼와셸은 현재 미야자키현에 2개의 태양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연산 8만kW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변화포럼 일행 공장 방문

지난 8월 18일 김성근, 정두언 국회의원 등 기후변화포럼과 역



스포시민포럼, 정부부처, 학계, 여수시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일행은 GS칼텍스의 녹색성장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이어 No.3 HOU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진행 경과를 둘러봤다.

한편, 이날 기후변화포럼 관계자들은 GS칼텍스에 감사패를 전달했는데, 이 감사패는 기후변화포럼 단체회원으로서 GS칼텍스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데 따른 감사의 뜻으로 수여된 것이다.

여수지역 나눔교육의 장 마련

GS칼텍스는 지난 9월 12일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GS칼텍스 밸류센터에서 여수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비영리단체 실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즐거움과 참 의미를 길러주기 위해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방과 후 학습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위한 나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3년째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나눔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공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나눔교육을 실천해온 '나눔교육교사연구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재밌게 실천할 수 있는 띠앗놀이, 공부방 나눔수칙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 S-OIL, 청정휘발유 생산시설 알킬레이션 공장 완공



S-OIL은 지난 9월 2일 휘발유 품질규격 향상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알킬레이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청정 휘발유 원료인 알킬레이트의 생산을 시작했다.

S-OIL은 온산공장 안에 있는 6,000m<sup>2</sup>의 부지에 2007년 9월부터 2년간 총투자비 약 1,500억원을 들여 하루 9,200배럴의 알킬레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알킬레이션 공장을 완공했다. 알킬레이션 시설에서 생산되는 알킬레이트는 낮은 증기압과 높은 옥탄가가 특징이며 특히 황, 올레핀, 아로마틱,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 휘발유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S-OIL 관계자는 "S-OIL은 친환경 휘발유 유분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국내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석유 제품 관련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공장의 완공으로 전량 구입에 의존하던 알킬레이트를 자체 공급하는 한편 외부 판매도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월드클래스 기업부문상 수상



S-OIL은 지난 9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2009년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에 5년 연속 선정되어 '월드클래스 기업부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영인협회

가 주최한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3G(Global, Great, Good)를 추구하는 국내 초일류기업을 찾아 격려하고 이들 기업의 창조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3억원 지원



S-OIL은 지난 8월 26일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소방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S-OIL은 화재진압, 긴급구조 활동 중 순직하거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소방관 자녀 100명에게 교육비로 각 3백만 원씩, 총 3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S-OIL 수베이 CEO는 "순직 소방관 자녀들

이 사회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여 원대한 희망을 갖고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건설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S-OIL은 앞으로도 소방가족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방관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방관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S-OIL은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강서구 일대에서 지역사회봉사자들과 함께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나누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 100여 명은 등촌4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직접 만든 송편과 식료품, 비누 등의 생필품 세트를 강서구 일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800 세대에 전달했다. 수베이 CEO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정(情)'의 의미를 직접 느끼면서 한국과 한결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년 추석에 직접 방문하여 송편과 생필품을 배달했던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별도로 개인적인 후원을 한 바 있는 수베이 CEO는 그 중 일부 가정을 올해도 다시 방문하여 근황을 묻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주)한진과 제휴 '주유소 택배서비스' 제공

S-OIL은 최고의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주)한진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주유소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S-OIL은 수도권 120곳을 비롯 전국의 계열 주유소 500여 곳에 택배취급점을 개설해 택배 화물 접수와 보관,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S-OIL 관계자는 "주유소에 본격적으로 택배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히고 "주유소 택배점은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영업하므로 고객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울산복지재단, '디딤씨앗통장' 우수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S-OIL울산복지재단은 지난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교 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디딤씨앗통장 4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서 CDA사업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디딤씨앗통장으로 불리는 CDA(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을 통해 보호 또는 양육하고 있는 어린 아동들이 향후 성년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재원을 적립하는 사업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 후원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후원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는 매칭펀드 제도이다.

S-OIL울산복지재단은 지난 1월 울산광역시와 CDA사업 후원을 위한 지원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아동 100명에게 매월 각 3만원씩 연간 총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해당 아동 계좌에 적립해 나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투명 경영 글로벌 수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한 2009 글로벌 리더상에서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이 투명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17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모든 경영 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윤리경영 실천, 경영혁신 프로그램 실행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투명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글로벌 리더상은 차별화된 글로벌 핵심 역량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발굴하며, 기

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대표적인 경제지인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상이다.

이번 글로벌 리더상 수상은 투명경영과 윤리적인 기업 철학의 실천에 힘을 쏟은 임직원 모두의 성과로 현대오일뱅크의 투명 경영이 글로벌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함께 즐거운 귀성길 되세요**



현대오일뱅크가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 고향으로 가는 귀성고객들을 위해 최신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증정 서비스를 펼쳤다.

지난 9월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6일까지 11일 동안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계열 주유소에서 펼쳤던 이번 행사는, 자사 보너스카드 주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백 여명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했다.

마케팅팀 이장혁 과장은 "추석을 맞아 고객들이 안전하게 고향

길을 다녀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꼭 막힌 교통체증에 지치기 쉬운 귀성길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4회 파란마음 파란세상 글쓰기 그림그리기 대회**

현대오일뱅크가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4회 파란마음 파란세상 글쓰기·그림 그리기 대회'를 펼친다.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주제와 관련된 자유로운 형식의 시와 산문 등 글짓기 작품과 크레파스나 물감 등의 그림 작품을 현대오일뱅크 공익캠페인 사이트([csr.oilbank.co.kr](http://csr.oilbank.co.kr))에 올리면 된다.

응모작들은 아동문학과와 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글과 그림 부문의 우수작품을 각 16편씩 선정하여 상패·상장과 함께 노트북, PMP, 디지털 카메라, 닌텐도 위 등 푸짐한 상품을 수여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글과 그림 부문에 가장 많은 응모작을 출품한 학교에 '찾아가는 1일 오일뱅크 환경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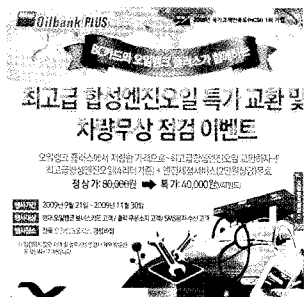
대산본사 인근 지역 쌀 소비운동 발벗고 나서다

현대오일뱅크가 예상 밖 풍년과 쌀 소비량 급감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9월 7일부터 대산 공장 임직원들이 대산 지역 특산품인 품부기 쌀 2천 포대, 시가 1억 원 상당을 공동 구매하는 등 '지역 쌀 팔아주기'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 쌀 구매 행사는 서산농협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날이 늘어만 가는 서산시의 쌀 재고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일뱅크 플러스에서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현대오일뱅크 계열 경쟁비점인 오일뱅크플러스에서는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이벤트와 함께 최고급 합성엔진오일을 특가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보너스카드

소지 고객 및 쿠폰 출력 고객 그리고 SMS 문자 수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8만원 상당의 최고급 합성 엔진 오일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오일뱅크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출력해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진 및 제동장치, 조향 장치, 전기, 타이어 점검 등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37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기아차 제휴, 주유소에 무선중계용 AP(Access Point) 구축

현대오일뱅크가 계열 주유소를 첨단 자동차 관리기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각 주유소별로 AP(Access Point : 근거리 양방향 무선 네트워크) 구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공사는 2차에 걸쳐 실시할 공사 중 첫번째 공사로 오는 10월5일 까지 전국 직영주유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공사는 12월 말까지 전국 지역 주유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사는 지난 6월에 현대·기아차와 체결한 '신개념 무선 차량관리 서비스 제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이 사업은 '차량정보 수집 단말기가 장착된 고객 차량이 AP(Access Point)가 설치된 오일뱅크 주유소를 방문할 경우, 차량 엔진 제어장치(ECU)로 부터 수집된 고객의 차량 정보가 곧바로 현대·기아차로 전달돼, 차량 상태 등 주유소에서 맞춤형 차량 관리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다.

서산시 정책 발전과와 자매결연 체결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시 정책 발전과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지난 9월 25일 대산 본사 VP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현대오일뱅크 박병규 상무와 서산시 정책발전과 이인수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체결 내용에는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진행하고 지역특산물 및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오일뱅크의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또한 서산시 정책발전과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운영 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였다.